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3월 12일 수요일(주간) 제412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봉은사 사회복지위 구성

봉은사는 강남 지역의 포교 일번지로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사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은사는 주지임명과 종단분규를 격을 때마다 혼란을 겪음으로써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또 아셈건물 건립과 관련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종단 및 종회와 최근까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강남 봉은사가 복지사찰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4일 개별사찰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복지공동체 봉은사 사회복지위원회는 신도들로 구성된 '작은 보시 큰자비 실천회' 등 산하 60개 자원봉사조직을 갖추고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복지위의 구체적 활동은 실직자 지원사업, 재난 구호사업, 장학사업, 무료진료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등 달기사업 등이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서울 강남구 및 수서구 일원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소년 · 소녀가장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위는 발족 후 1차 실천행사로 수서동사무소를 방문, 생활보호대상 50세대에 쌀 20㎏씩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위가 곧바로 어려운 이웃을 찾은 건 굳은 실천 의지로 보인다. 신도들의 신행을 복지사업으로 회향하는 봉은사 사회복지위의 출범은 자비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올해를 '신앙회복의 해'로 정하고 전 사부대중이 청규를 생활화하여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행, 참다운 원력을 이웃에 회향키로 한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빈틈없는 실천으로 성공적인 사찰의 복지모델로 정착시켰으면 한다. 또 이 기회에 특별감사도 성실히 받아 그동안의 의혹도 말끔히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에 회향하는 사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릉: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고속철 금정 · 천성산 노선 재검토 북한산 관통도로 불교계와 협상

노대통령,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서 지시

문재인수석, 지율스님 방문 정부방침 전달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관통 공사중단과 함께 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 5일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해 북한산 및 금정산 · 천성산 공사중지와 대안노선 검토를 약속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노선 백지화를 약속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던 금정산 · 천성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 정무수석으로부터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건설을 반대하며 31일째 단식중인 내원사 지율스님 소식을 비롯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 등 불교계의 입장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춘추관장이 전했다.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공사중단에 대한 언급없이 불교계와 협상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일 지율스님을 방문, 공사중단 및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전달했다. 또 청와대는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수석실 차원에서 금명간 불교계와 만나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금정산 · 천성산 공사중단 및 노선 재검토 지시는 백지화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토지매입이나 공사발주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현 노선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율 스님의 단식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관련기사 14면

금정산 · 천성산 노선 재검토 방식 및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노 대통령이 '쌍방의 전문가가 참여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협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유인태 정무수석도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대안노선을 모색하겠다"고 한 만큼 불교계, 건교부, 시공업체, 환경단체 등 폭넓은 범위의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계종 공동대책위와 범어사 · 통도사 등 부산경남지역 사찰들은 완전 백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율 스님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부산시청 앞에서 14일 대규모 환경법회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오른쪽 세번째)과 총무원 집행부 및 18개 교구본사주지가 7일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희생자들을 위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구= 박원구 기자

조계종 24기 행자교육원 9~31일 부산 범어사서

조계종 제24기 행자교육원이 9일부터 31일까지 제14교구본사 범어사에서 열린다.

만 41~50세가 출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행자교육원은 입교신청자 291명(남행자 194명, 여행자 97명)의 40%가량이 40대 출가자다. 사미 · 사미니 율의, 예식의궤 · 작법 등 9개 교과목과 '일보일배, 삼보일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틱낫한(24일) 스님과 총무원장 법장 스님(날짜 미정)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30일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하면 마지막 날 사미(니) 계를 받는다.

권형진 기자

비구니스님 첫 부장 임명

법장스님 총무원 집행부 구성 … 종정 법전스님 예방

조계종 문화부장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사상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 부장직에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4일 문화부장 탁연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성관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재무부장 태연스님, 사회부장 현광스님, 호법부장 현진스님 등 총무원 6개 부서 부 · 국장 인선내용을 발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3면

또 불교신문사장에는 현응스님이 임명됐으며,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유임됐다.

법장스님은 탁연스님의 문화부장 임명에 대해 "성보문화재 발굴관리 등 불교문화를 발전 계승하는데 비구니 스님의 섬세함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임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새로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7일 해인사를 방문,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과반수가 넘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사회흐름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법전스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혜롭게 처리하셨겠죠"라고 화답했다. 법전스님은 또 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종단화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비구니 스님의 문화부장 임명과 관련해 한국불교기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여성개발원은 6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법장스님은 해인사 방문 후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본사주지연합회 회의에 참석한 뒤 총무원 집행부 및 본사주지스님들과 함께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3천만의 성금을 기탁했다.

한명우 · 박원구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6일 개원

입학생 18명 등록, 박사과정 곧 신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종범스님) 대학원 개원식이 6일 본관 4층 대법당에서 대학원장 홍선스님, 총동문회장 원행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개원사에서 "승가대 대학원 개원은 승가학풍 수립의 단초를 마련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사회에 봉사하는 승려를 배출하여 불교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총무부장 성관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중앙승가대 대학원 설립은 한국불교 1700년사의 쾌거"라며 "이후 박사과정을 개설해 종단의 대표 승려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원 설립을 허가받은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불교, 역경, 실천불교(포교사회)전공 학술(석사)학위 수여과정으로, 20명 정원이며, 2월 27일 첫 입학생 18명이 등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남북 3 · 1절 공동법회

남한선 처음, 조불련서 6명 참가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에서 남 · 북 불교계 합동 법회가 개최됐다.

2일 황병준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등 6명의 조불련 관계자 들은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 도착, 법왕루에서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3 · 1절 기념 ·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과 조불련 차서명 책임부원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이 땅 위에 대 결 과 불 신 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전에 간절한 서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틱낫한 스님 16~4월 4일까지 방한

특강 · 새만금 방문

틱낫한 스님이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방한해 대중강연, 송광사 · 범어사 특강, 새만금 방문, 수행법 지도에 나선다.

스님은 23일 순천 송광사를 방문해 방장인 보성스님과 다담을 나누고, 24일에는 송광사 강원과 부산 범어사 행자교육원 특강이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남원 실상사를 방문해 귀농학교와 한생명, 작은학교, 화림원 등을 둘러보고, 28일에는 새만금 갯벌에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와 함께 '새만금 생명살리기를 위한 걷기 명상'을 한다.

3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강의,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오후 7시 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3회 강연 등도 준비돼 있다. 관련기사 5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mahamall.co.kr 마하몰에 추천하는 신상품

희담석 稀潭石

"보살님, 처사님
생명의 돌, 희담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 연카키색, 살구색

〈희담석 팸질백〉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 권장소비자가격 : 80,000원

〈희담석 보료〉
● 고급형 보료 :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 :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직업적인 이유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데 수 개월 동안 항문 부분이 몹시 아팠다. 잘못하면 치질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병원이나 약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고 있던 중 〈희담석 방석〉을 만나게 되었다. 그냥 의자에 깔고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몇 개월 동안 아팠던 항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석을 사용한 지 불과 보름이나 지났을까? 〈희담석 방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더니 확안한 일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이라니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 더 구매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원(43세/남, 작가)

● 나는 하루종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데 밤샘 작업 후나 아근 후에는 어깨와 팔이 수시로 쑤시곤 했다. 그러던 중 마하몰에서 판매되는 〈희담석 방석〉을 보고 처음에는 두손 탕석이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과 함께 비싼만큼 무언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여 직장에서는 방석으로, 집에서는 팔과 어깨 부위 등에 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베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제는 항상 〈희담석 방석〉을 항상 지니고 생활하는 희담석 매니아가 되어 버렸다. 최정근(33세/남, 컴퓨터 디자이너)

●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졸기 일수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재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 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여고 다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이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 반 32명 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에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앉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정안 스님(건남, 덕흥사)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